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최경숙* 김지은**

Keywords

식생활만족도(dietary life satisfaction), 식품위해(food hazards), 소비자 불안(consumer anxiety),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food consumer information literac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onsumer anxiety on food hazards and food consumer information literacy for dietary life satisfaction with domestic and imported foods. Our analysis resulted in three significant findings. First, the information utilization, synthesis, and evaluation factor, the information search and access factor, goal setting for information search factor among food consumer information literacy, consumer anxiety on food hazards, and dietary lif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due to our analysis of the effect of consumer anxiety of food hazards and food consumer information literacy on dietary life satisfaction, consumer anxiety on food hazards and the consumer's gender affect dietary life satisfaction with domestic and imported foods. Third, goal setting for information search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dietary life satisfaction with domestic foods. Information utilization, synthesis, and evaluation showed a full mediating effect on dietary life satisfaction with imported foods. On the other hand, goal setting for information search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Consequently, food consumer information literacy has direct or indirect impacts on dietary life satisfaction with domestic and imported foods.

차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및 고찰
5. 요약 및 결론

* 동국대학교(경주) 가정교육과 강사, 대표저자

** 동국대학교(경주) 가정교육과 초빙강의교수, 교신저자. e-mail: thang@daum.net

1. 서론

식품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으로 인해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에 소비자는 더욱 민감해졌고 소비자 불안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는 식품 관련 소비자정보를 탐색한다. 하지만 대중매체 및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식품 관련 정보가 연일 수없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식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소비자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소비자의 활용 능력은 부족하다(이계임 외 2018).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가려내어 활용할 수 있는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식생활에서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부정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 탐색 행위를 하며(송유진·유현정 2008), 이를 통해 식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킨다. 소비자에게는 정보 탐색 과정에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는 식품 정보 탐색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보 채널에 접근해 자신에게 적절한 식품소비자정보를 찾아 이를 추출, 분석, 종합하여 식품구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는 식품안전 및 식품위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소비자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Eisenberg and Berkowitz(1990)의 Big 6 Skills를 활용하여 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개념화하고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황혜선·김기옥 2012; 이유림 2017) 다양한 소비의 영역으로 확장이 시도되고 있다. 식품소비자정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영양 정보와 식품표시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온라인이나 대중매체를 정보 원천으로 한 식품소비자정보를 다룬 연구들(박명희 외 2011; 윤송아·유혜숙, 2016; 정은아·김정희 2018; 김부성 외 2019)도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이계임 외(2018)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정보 활용 역량을 다루고 있을 뿐,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식생활 영역으로

확대하여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소비자안전 분야는 식생활이 48%로 가장 높으며(김인숙·정영훈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 각 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품위해 불안(39.1%)이 사회불안(34.5%)보다 다소 높다. 일반먹거리로 인한 불안(39.2%)보다는 수입식품안전에 대한 불안(57.8%)이 높으며, 특히 중국산(90%)과 일본산(87%)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선 외 2015). 이계임 외(2018)에 따르면, 중금속·환경호르몬 등(73.1%)에 대한 우려도가 가장 높으며, 그 외 위해 요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성인 가구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수준이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국내식품보다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신 2016).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농·축·수산물 포함)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수입 신고 건수는 2013년도 494,242건에서 2017년도 672,273건으로 36.0% 증가하였고, 품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농·임산물 10.3%, 가공식품 37.4%, 건강기능식품 1.6%, 식품첨가물 5.6%, 기구 또는 용기·포장 15.7%, 축산물 15.2%, 수산물 14.2%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은 소비자가 식품위해로 인해 개인의 생명과 건강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의 식생활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효정·김미라 2009).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식생활 만족도는 감소한다(서여주·임은정 2014; 이성림 외 2014).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높은 것은 소비자의 식생활만족도뿐 아니라 식품산업과 사회적 분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식생활만족도와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의 관계를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국내 식품과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및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국내식품 및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체화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영역은 식품소비자정보 교육 및 식품소비자정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및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생활만족도와의 관계 규명을 통해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식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으며, 식품 소비자 역량 강화

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는 식품위해를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해(hazards)란 물질 자체가 포함하는 객관적 요소로서, 식품의 생산과 가공 및 포장, 유통과정에서 함유되는 유해물질로 잠재적인 위험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반면, 위험(risk)은 위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까지 포함하는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용어로 나누어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윤여임·김경자 201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33호)에서 위해요소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송유진·유현정(2008)은 식품위해 요인을 제품위험(예: 식중독균,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등)과 장소위험(원산지, 가공지 등)으로 분류하였다. Yeung and Morris(2001)는 식품위해 요인을 생물학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 기술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계임 외(2018)의 식품소비행태조사 연구에서는 중금속·환경 호르몬, 잔류농약, 방사능, 식중독균, 축산·활어의 항생제, 가축질병, 이물질, 식품첨가물로 구분하여 식품위해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리학에서 불안(anxiety)이라는 감정은 위해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결합으로 설명한다(양윤 2004). 소비자는 식품위해라는 불확실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하여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불안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이승신 2016). 소비자들은 식품의 위해 정보 자체보다는 심리적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때의 심리적 위험(risk)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이기현 2008).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식품위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이정윤·김규동 2009),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감정이다. 사지연·여정성(2014)은 유전자재조합식품과

식품첨가물, 광우병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소비자가 소비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긴장과 염려 등이 누적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고, Yeung and Morris(2001)는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식품 구매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해석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강화에도, 방사선조사나 식품첨가물 같은 식품생산 및 가공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진일보는 오히려 소비자 불안을 가중하기도 한다.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불안 수준이 높으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 수준이 매우 높고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김효정·김미라 2009; 김선업 외 2012; 박은진 외 2013; 사지연·여정성 2014; 전상민 2014; 한진영 2014). 또한,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식품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위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정정화 2009; 김선업 외 2012; 한진영 2014; Smith & Riethmuller 2000; Dosman et al. 2001; Hogan & Berning 2012; Wang et al. 2013). 연령의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불안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불안 수준이 높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어(정정화 2009; 사지연·여정성 2014; 전상민 2014; 한진영 2014) 위해 요인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요한 식품위해 요인으로 광우병, 유전자 변형 식품,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방사선조사, 환경호르몬, 중금속, 식중독 등이며(김효정·김미라 2002; 김상숙 2007; 이정윤·김규동 2009; 김효정·김미라 2011; 윤여임·김경자 2013; 사지연·여정성 2014; 한진영 2014; 이계임 외 2018), 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수입 신선식품과 어류·어패류, 축산·육가공품, 방사선조사 등으로 이들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식생활만족도를 저해시킨다(김지은 2009; 장민선 외 2009;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2; 윤여임·김경자 2015; 이성림 외 2014). 전상민(2015)의 연구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은 국산식품 추가 지불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산식품 추가 지불 의도가 식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와 식생활 만족도를 완전매개한다고 하였다.

2.2.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 선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소비 목표 달성에 유용한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의사결정 시 정보 탐색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 탐색 시 소비자는 자신이 탐색해야 할 정보 탐색 과업이 무엇인지 정할 수 있어야 하며, 어디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 알고, 나의 소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의 상용화와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보 원천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정보 획득의 효율성과 용이성이 배가되면서, 소비자에게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소비자정보가 무엇인지, 소비자정보를 잘 탐색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강조된다. 소비자정보 리터러시는 소비자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과제해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소비자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소비자 정보 탐색과 소비자정보 활용에 관한 전반적 과정에서 요구되는 소비자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황혜선·김기옥(2012)은 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소비자정보역량(consumption information competency)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소비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규정(define), 탐색(search), 추출(extract), 종합 및 활용(synthesize & use)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외적 탐색 및 활용능력으로 보았다. 이유림(2017)은 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소비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량, 즉 소비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규정, 탐색, 추출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 탐색 및 활용능력으로 보았으며, 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정보 탐색 목표설정 역량(define), 정보 채널 탐색 역량(search), 정보 활용 및 정보 탐색 과정평가(synthesize & evaluation) 역량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황혜선·김기옥(2012), 이유림(2017)의 연구는 공통으로 정보 리터러시 모델인 Eisenberg and Berkowitz(1990)의 Big 6 Skills를 토대하고 있다. 정보 리터러시의 Big 6 Skills는 일반적인 정보 기반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정보 탐색 및 활용의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의 목록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소비자정보 리터러시의 하위 요소를 규정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황혜선·김기옥 2012). Eisenberg and Berkowitz(1990)의 Big 6 Skills는 정보와 관련된 활동 과정을 6개 하위 단계로 설명하면서,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 탐색 활동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과업 정의(task

definition)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다. 두 번째는 정보 탐색 전략(information seeking strategies)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전략을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용 가능한 정보원의 범위 결정, 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원을 평가한다. 세 번째는 소재 파악 및 접근(location & access)의 단계다. 앞서 세운 정보 탐색의 전략에 따라 정보를 실제로 탐색하는 단계로 정보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원 안에서 정보를 찾는 능력이 요구된다. 네 번째 단계는 정보 활용(use of information)이다. 정보원에서 정보를 열람하고, 선별하여 추출하는 단계로 소비자에게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출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종합(synthesis) 단계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들을 조직화하고, 조직화한 정보들을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마지막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는 정보 문제 해결의 과정을 평가한다.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 문제 해결 과정, 과정의 능률성과 결과의 효과를 평가하여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판단한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는 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식품 소비생활에 적용한 개념으로 식생활 영역에서도 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식품을 구매하기 전 소비자는 원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탐색 과정을 거친다. 식품 소비자정보 탐색은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식품 및 식품 구매 유통경로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이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는 식품 정보 탐색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보 채널에 접근해 자신에게 적절한 식품소비자정보를 찾아 이를 추출, 분석, 종합하여 식품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 식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쳐 의미와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나아가서 효율적으로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이다(Neugarten, Havighurst et al. 1961). Warr, Butsher and Robertson(2004)은 삶의 상황들에 대해 개인이 내리는 인지적 평가의 한 부분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정도를 생활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임해파, 이승신(2016)은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기준 또는 표준에 따라 그 기대 수준이 합리적으로

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현재 자신의 생활 상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생활만족도라고 하였다. 생활의 여러 영역 중 식생활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영양물을 제공하는 음식물과 관련된 모든 생활상으로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욕구까지 충족시키는 생활영역으로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고려된다.

소비자의 식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것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전제로 하며, 절대적으로 안전한 식품의 상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탐색한다. 식품안전 관리 행동은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① 정보 탐색 단계의 안전 추구 행동, ② 상품 선택 단계의 안전 추구 행동, ③ 상품 사용 단계의 안전 추구 행동으로 구분하며(송유진·유현정 2008), 정보 탐색은 식품안전 관리의 첫 단계로 효율적인 정보 탐색을 위해서는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외부적 요인 외에도 소비자의 정보 취득 능력 및 이해 정도와 활용에 따라 달라진다(유현정·주소현 2012). 서여주·임은정(2014)은 다인가구에서 국산 농·수·축산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낮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성림 외(2014)는 수입 신선식품과 국내 신선식품 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식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선행변수들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밝히고 있다. 서여주·임은정(2014)은 국산 농·수·축산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통해 소비자역량만족도가 식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전상민(2017)은 식품 불안이 소비자안전정보 신뢰와 식생활만족도에 조절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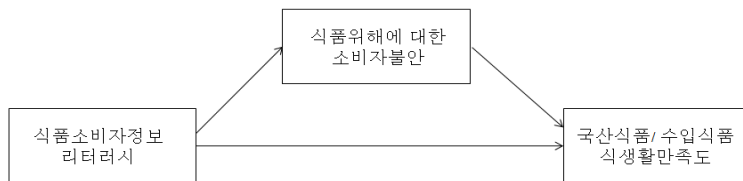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국산식품과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자료: 저자 작성.

3.2. 측정도구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와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이성림 외(2014), 서여주·임은정(2014)의 연구를 토대로 측정하였다. 식생활만족도는 국산식품과 수입식품 각각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편의식품(즉석·가공식품, 냉동식품 등), 음료, 빵·과자류에 대한 만족도를 1점 ‘매우 불만족하다’에서 5점 ‘매우 만족하다’까지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 각각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편의식품(즉석·가공식품, 냉동식품 등), 음료, 빵·과자류에 대한 불안을 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에서 5점 ‘매우 불안하다’까지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식생활만족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0.84,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Cronbach's α 가 0.90으로 나타나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인 Eisenberg and Berkowitz(1990), 황혜선·김기욱(2012), 이유림(2017)의 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측정문항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5점 Likert scale로 측정되었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 20문항을 구성하였고, 요인 분석을 통해 3개 요인 17문항으로 수렴되었다. 요인분석은 배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요인적재치값 0.5와 고유향값 1.0을 기준으로 항목을 정제하였으며, 요인1은 정보 탐색 목표 설정으로, 요인2는 정보 탐색 및 접근으로, 요인3은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로 명명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0.83~0.91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 1.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문항	Cronbach's α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식품의 우수성을 판단할 때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	0.83
	식품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조사가 더 필요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식품 구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정보 탐색 및 접근	식품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블로그, SNS, 가격비교사이트, 지식검색 등)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	0.86
	식품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매체(TV방송, 신문/잡지기사 등)를 다양하게 알고 있다.	
	식품 구매에 대한 오프라인(매장 점원, 지인, 광고전단지 등) 정보 원천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식품 구매에 대한 온라인(블로그, SNS, 가격비교사이트, 지식검색 등) 정보 원천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식품 구매에 대한 대중매체(TV방송, 신문/잡지 기사 등) 정보 원천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0.91
	많은 식품 구매 정보들 가운데 나에게 알맞은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과장된 또는 허위의 식품정보를 쉽게 골라낼 수 있다.	
	많은 식품 정보들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추려낼 수 있다.	
	식품 구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집한 식품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수집한 식품 구매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식품 구매와 관련된 정보 탐색과정이 효율적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식품 구매와 관련된 정보 탐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		
정보 탐색을 통해 얻은 식품 구매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다.		

3.3.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모의표집방법으로 조사하였다.¹ 응답자 460명 중 부실 응답을 제외하고 454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20대 24.2%, 30대 24.2%, 40대 25.6%, 50대 26.0%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성별은 남자 48.5%, 여자 51.5%였다. 교육 수준의 대부분은 4년제 대학 졸업으로 54.0%를 차지하였다. 전문대 졸업은 20.0%,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18.1%, 대학원 이상은 7.9%였다. 소득은 199만 원 이하 27.3%, 200만~299만 원 23.3%, 300만~399만 원 21.1%, 400만~499만 원 12.3%, 500만 원 이상은 15.9%로 나타났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3.17 ± 0.64 (5점 만점)로 중간 이상의 불안을 보였다. 김선업 외(2012), 이성림 외(2014), 전상민(2014), 한진영(2014), 전상민(2017)의 연구를 보면 식품위해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소비자 불안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중 정보 탐색 목표설정 요인은 3.29 ± 0.78 (5점 만점), 정보 탐색 및 접근 요인은 3.27 ± 0.68 ,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은 3.26 ± 0.65 로 나타나 모든 요인이 약간 높은 리터러시 점수를 보였다. 식생활만족도는 국산식품에 대한 만족도가 3.57 ± 0.58 (5점만점)로 높은 편이었고, 수입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2.94 ± 0.63 으로 국산식품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았다. 김인숙·정영훈(2014)의 2014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연구와 이계임 외(2018)의 2018 식품소비행동조사에서도 국산식품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수입식품보다 더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4.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소비자의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²을 실시하였다. 또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식

1 설문조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수행되었다. 샘플링은 확률적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연령별·성별 집단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효과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Sobel Test³ 를 사용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Sobel, 1982).

표 2. 조사대상자의 기초통계량(N=454)

변수	구분	N(%) / M ± SD
연령	20대	110(24.2)
	30대	110(24.2)
	40대	116(25.6)
	50대	118(26.0)
성별	남자	220(48.5)
	여자	234(51.5)
교육 수준	≤ 고등학교	82(18.1)
	전문대 졸업	91(20.0)
	4년제 대학 졸업	245(54.0)
	≥ 대학원	36(7.9)
소득 (10,000원)	≤ 199	124(27.3)
	200~299	106(23.3)
	300~399	96(21.1)
	400~499	56(12.3)
	≥ 500	72(15.9)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5점 만점)	-	3.17±0.64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5점 만점)	정보 탐색 목표 설정	3.29±0.78
	정보 탐색 및 접근	3.27±0.68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3.26±0.65
식생활만족도 (5점 만점)	국산식품	3.57±0.58
	수입식품	2.94±0.63

2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정화작업이 수행되었고, 종속변수가 1개이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예측과 설명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선형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3 Sobel 방정식 $Z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 : 1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 3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 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a : a의 표준오차, SE b : b의 표준오차

Z-value가 1.96보다 크다면 p < .05수준에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국산식품과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의 관계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소비자의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소비자의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는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요인 중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요인 중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정보 탐색 및 접근 요인은 국산식품의 식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은 국산식품의 식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소비자정보 리터러시를 소비자정보 역량으로 설명한 황혜선·김기욱(2012)의 연구와 서여주·임은정(2014)의 연구에서도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가 유의한 관계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전상민(2014)의 연구에서도 식품 위해에 대한 불안과 식품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반비례의 관계였다.

표 3.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국산식품과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의 관계

문항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식생활만족도	
		정보 탐색 목표설정	정보 탐색 및 접근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국산식품 식생활 만족도	수입식품 식생활 만족도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1					
식품소비자 정보 리터러시	정보 탐색 목표설정	0.04	1			
	정보 탐색 및 접근	-0.01	0.65***	1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0.10*	0.70***	0.70***	1	
식생활 만족도	국산식품 식생활만족도	-0.34***	0.19***	0.15**	0.13**	1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	-0.39***	0.19***	0.06	0.04	0.25***

* p<0.05 **p<0.01 ***p<0.001

4.2.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소비자의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수입을 통제변수로 둔 상태에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경우에서 독립 변수들의 공차한계 값이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 값이 3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는 1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수입을 투입한 결과, 통제변수의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1%로 나타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인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요인을 투입하여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 변수의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요인의 설명력이 높지는 않지만,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이 유의한 독립 변수이고, 정보 탐색 목표 설정이 높을수록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beta=0.16, p<.05$). 3단계에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요인들과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은 17%로 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성별과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여성($\beta=-0.14, p<0.01$)이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가 높고,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beta=-0.34, p<0.001$)이 낮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식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여주·임은정(2014), 이성림 외(2014), 임해파·이승신(2016)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국산식품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임해파·이승신(2016)의 연구에서도 성별이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서여주·임은정(2014)의 연구에서는 성별은 식생활 소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학력이 영향을 미쳐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성림 외(2014)의 연구와 김다정·강혜정(2018)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식생활 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식품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회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_1 = 35.68 + (-0.14) \times X_1 + (-0.34) \times X_2$$

(Y_1 = 국산식품의 식생활만족도, X_1 = 성별, X_2 =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는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한 결과, 통제변수는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를 6%를 설명하고 있다. 통제변수 중 성별과 연령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남성($\beta=0.18, p<0.01$)이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가 높았고, 연령($\beta=-0.09, p<0.01$)이 낮을수록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가 높았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요인을 투입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1%로 나타났고, 남성($\beta=0.20, p<0.01$)이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가 높고, 연령($\beta=-0.08, p<0.01$)이 낮을수록,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beta=-0.15, p<0.05$)가 낮을수록, 정보 탐색 목표 설정($\beta=0.34, p<0.001$)이 높을수록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가 높았다. 3단계에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요인들과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은 20%로 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성별,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남성($\beta=0.11, p<0.05$)이, 정보 탐색 목표설정이 높을수록($\beta=0.29, p<0.001$),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낮을수록($\beta=-0.32, p<0.001$)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_2 = 30.03 + 0.11 \times X_1 + (-0.32) \times X_2 + 0.29 \times X_3$$

(Y_2 =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 X_1 = 성별,

X_2 =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X_3 = 정보 탐색 목표 설정 리터러시)

표 4.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산식품 식생활만족도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						
	1 단계		2 단계		3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여성) ¹⁾	-0.07	-0.06	-0.05	-0.04	-0.14**	-0.12	0.18**	0.14	0.20**	0.16	0.11*	0.09	
연령	0.01	0.02	0.02	0.03	0.05	0.09	-0.09**	-0.16	-0.08**	-0.14	-0.05	-0.09	
교육 수준	0.00	0.00	0.00	0.00	0.00	0.01	-0.02	-0.03	-0.02	-0.02	-0.01	-0.01	
수입	-0.03	-0.06	-0.03	-0.07	-0.01	-0.02	-0.04	-0.08	-0.04	-0.09	-0.02	-0.04	
식품 소비자 정보 리터러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0.16*	0.17	0.12	0.12			0.34***	0.32	0.29***	0.28
	정보 탐색 및 접근			0.06	0.06	0.04	0.05			-0.02	-0.03	-0.04	-0.04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0.03	-0.03	0.02	0.02			0.15*	0.16	0.11	0.11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0.34***	-0.38					-0.32***	-0.32	
(상수)	35.68***		15.75***		18.46***		30.03***		13.38***		15.62***		
F-value	0.83		2.97**		11.24***		7.53***		8.22***		14.32***		
R ²	0.01		0.04		0.17		0.06		0.11		0.20		
Adjusted R ²	0.00		0.03		0.15		0.05		0.10		0.19		

* p<0.05 **p<0.01 ***p<0.001

1) 더미변수 성별(여성)이며 기준변수는 남성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산식품의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고,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정보 탐색 목표 설정 리터러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었다. 이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고 그다음으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리터러시 요인, 성별 순서였다.

4.3.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소비자의 국산식품과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의 매개 효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소비자의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분석 방법⁴을 사용하였으며,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 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국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매개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1단계 검증에서 독립 변수인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의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beta = -0.15, p < 0.05$),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beta = 0.15, p < 0.05$)은 종속변수인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탐색 및 접근 요인은 소비자 불안에 유의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았다. 2단계 검증에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의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beta = 0.17, p < 0.05$)은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보 탐색 목표 설정이 높을수록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 탐색 및 접근 요인과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은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와 유의성이 없었다. 3단계 검증에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의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은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무의미 수준으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 = 0.17 \rightarrow \beta = 0.12$). 따라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은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obel Test($Z = 2.06, p = 0.02$)를 통해 매개 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서여주·임은정(2014)의 연구에서 소비자역량 만족도와 식생활 소비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식품불안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국산식품의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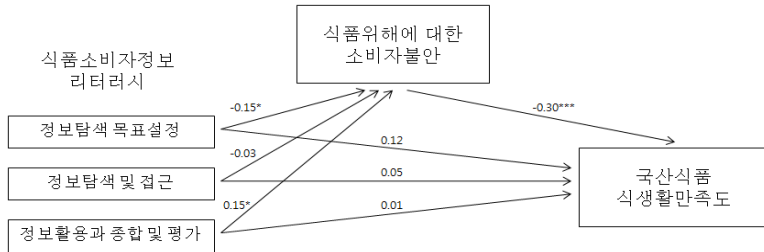
4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변인의 효과분석 절차. 1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2 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를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2단계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줄어야 한다. 이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한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 매개, 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로 볼 수 있다.

표 5.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국산식품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의 매개 효과

		B(SE)	β	t	R ²	F
• 1단계: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소비자 정보 리터러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0.15(0.07)	-0.14	-2.01*	0.02	2.99*
	정보 탐색 및 접근	-0.03(0.06)	-0.03	-0.47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0.15(0.07)	0.16	2.14*		
• 2단계: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 국산식품 식생활만족도						
식품소비자 정보 리터러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0.17(0.07)	0.17	2.49*	0.04	5.97***
	정보 탐색 및 접근	0.06(0.06)	0.07	1.07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0.03(0.07)	-0.04	-0.53		
• 3단계: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 국산식품 식생활만족도						
식품소비자 정보 리터러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0.12(0.06)	0.12	1.92	0.14	19.42***
	정보 탐색 및 접근	0.05(0.05)	0.06	0.97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0.01(0.06)	0.01	0.20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0.30(0.04)	-0.33	-7.58***		

*p<.05, **p<.01, ***p<.001

그림 2. 리터러시와 국산식품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의 매개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매개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수인 식품소비자 정보 리터러시의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beta=-0.15$, $p<0.05$),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beta=-0.15$, $p<0.05$)은 종속변수인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탐색 및 접근 요인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2단계 검증에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의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beta=0.34$, $p<0.001$),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beta=-0.16$, $p<0.05$)은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보 탐색 및 접근 요인은 식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단계 검증에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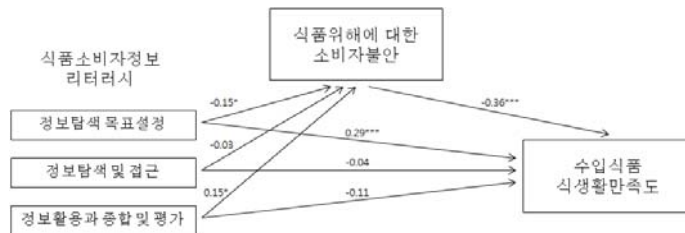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은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beta=0.34 \rightarrow \beta=0.29$),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은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무의미 수준으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0.16 \rightarrow \beta=-0.11$). 따라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고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은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결과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Z=2.08, p=0.02$),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Z=-2.08, p=0.02$)은 매개 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의 매개 효과 분석결과는 <그림 3>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6.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의 매개 효과

		B(SE)	β	t	R ²	F
• 1단계: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소비자 정보 리터러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0.15(0.07)	-0.14	-2.01*	0.02	2.99*
	정보 탐색 및 접근	-0.03(0.06)	-0.03	-0.47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0.15(0.07)	0.16	2.14*		
• 2단계: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						
식품소비자 정보 리터러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0.34(0.07)	0.33	4.84***	0.05	8.41***
	정보 탐색 및 접근	-0.03(0.06)	-0.03	-0.46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0.16(0.07)	-0.17	-2.35*		
• 3단계: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						
식품소비자 정보 리터러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0.29(0.07)	0.28	4.39***	0.19	25.78***
	정보 탐색 및 접근	-0.04(0.06)	-0.04	-0.69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0.11(0.06)	-0.11	-1.66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0.36(0.04)	-0.37	-8.59***		

*p<.05, **p<.01, ***p<.001

그림 3. 리터러시와 수입식품 식생활만족도에 대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의 매개분석 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5>와 <표 6>에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식생활만족도 두 변수만의 관계를 보면, 수입 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요인은 정보 탐색 목표 설정과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였다.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요인은 정보 탐색 목표 설정이었고,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수입식품과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모두 정보 탐색 목표 설정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는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에 의해 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탐색한 정보를 선택, 활용, 평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식생활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정보를 선택, 활용, 평가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식품의 품질이나 안전 등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높은 리터러시 능력에 비해 구매 가능한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식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를 분석한 이현주(2019)도 안전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역량이 높은 경우 식품의 안전문제에 더 민감하고 수입 식품이나 위해요인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김선업 외(2012)의 연구에서는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불안 수준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세현 외(2011)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수입식품 안전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고, 이계임 외(2018)의 식품소비행태조사와 진현정 외(2014)의 연구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도가 국산식품에 대한 불안도보다 높았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높은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식생활만족도가 낮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매개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중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변수는 부분 매개 효과를,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과 식생활만족도에서 소비자 불안 변수는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이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소비자 불안 변수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은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매개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중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과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변수는 완전 매개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은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매개하여 국산식품에 대

한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이현주(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구매역량(식품을 구매하거나 식당을 선택할 때 요구되는 역량)과 식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국산식품 안전성 변수가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는 소비자의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매개 변인인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의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 정보 탐색 및 접근 요인,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 요인,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소비자의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국산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성별이고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는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중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셋째,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중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의 식생활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탐색 목표 설정에 대한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보 탐색 목표 설정은 식품 구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필요한 식품정보를 찾는 과정으로, 소비자에게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어떠한 식품 관련 소비자정보가 필요한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교육 시, 정보 탐색 목표 설정 요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기존 정보와 더 필요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소비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더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 식습관, 건강 상태, 식생활 관련 지식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평가는 대한영양사협회(www.dietitian.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양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고, 평가는 기존 정보와 더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세워야 할 정보 탐색의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식품 구매를 위해 기존 정보 외에 더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원천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설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나라 트위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설하여 농식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식품정보누리(www.foodnuri.go.kr) 등의 정보 원천을 활용하면 식품 구매 시 더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정보 탐색 목표 설정 리터러시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중 정보 활용과 종합 및 평가는 수입식품의 식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으로 인해 매개되었기 때문에 수입식품에 대한 식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기현(2008)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위해(hazard) 정보 자체보다는 ‘불안전할 것이다’라는 심리적 상태 때문에 위험(risk)을 느끼고 불안해한다고 하였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식품에 대한 비전문적 지식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넘쳐나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 중에서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안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접하는 온라인, 대중매체, 오프라인 등 다양한 정보 원천의 장단점, 정보 원천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안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고, 리터러시가 수입 식품의 식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을 낮추어 식생활만족도가 증가하면 이는 식품안전관리강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 앞으로 우리의 식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비전문적 지식에 의해 야기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으로 피해를 본 식품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국산식품의 경우 여성이, 수입식품의 경우 남성이 식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한 식생활 교육의 설계와 수행이 요구된다. 여성의 경우,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이 높는데(김선업 외 2012; 전상민 2014),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선업 외 2012). 따라서 식생활 교육을 설계할 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식품위해에 대한 지식, 이로 인해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점, 식품위해를 줄일 수 있는 식재료 선택과 조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먹거리 소비에 대해 불안 회피, 불안 무관심이 높으므로(김선업 외 2012), 식품위해 불안에 대한 남성들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하고 지식을 높이기 위한 식생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식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정보 리터러시에서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로 영역 확대를 시도하였으나 구체적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식품의 유형이나 식품과 관련된 리터러시 내용의 세부화를 통해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 개념 및 하위요인과 식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해 더욱 면밀한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식생활만족도와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측정하는 데 소비자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을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관련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식생활만족도와의 영향 관계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이나 불만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김다정, 강혜정. 2018. “청소년의 식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41권 제1호, pp. 17-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doi.org/10.36464/jrd.2018.41.1.002>
- 김부성, 박상혁, 김연중. 2019. “농식품 구매 시 고객의 정보매체 이용 패턴분석.”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9권 제3호, pp. 47-66.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김선업, 김철규, 이해진. 2012. “먹거리 불안과 관련 소비행위의 사회계층적 분화.” 『농촌사회』 제22권 제1호, pp. 215-264. 한국농촌사회학회. UCI:G704-000099.2012.22.1.010
- 김성숙. 2007.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5권 제6호, pp. 15-32. 한국가정관리학회. UCI:G704-000320.2007.25.6.006
- 김인숙, 정영훈. 2014. 『2014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연구』. 한국소비자원.
- 김정선, 송태민, 이난희, 심보람. 2015.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전략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은. 2009. 『부산시내 일부 주부들의 식품사고 발생 후 식품의 안전성과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인식정도』.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김미라. 2002.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지도 및 정보요구도에 관한 분석 :방사선조사 식품과 환경호르몬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17권 제2호, pp. 153-164. 한국식생활문화학회. UCI:G704-000572.2002.17.2.005
- 김효정, 김미라. 2009. “소비자의 식품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도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탐색 행동.”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제19권 제1호, pp. 116-129. 동아시아식생활학회. UCI:G704-001333.2009.19.1.011
- 김효정, 김미라. 2011. “식품 위해 요인에 대한 우려도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식품 생산자, 소비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인식도.”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제21권 제3호, pp. 401-417. 동아시아식생활학회. UCI:G704-001333.2011.21.3.001
- 박명희, 조유현, 이심열. 2011. “식품 정보제공 사이트 분석을 통한 소비자 지향적 식품안전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4권 제3호, pp. 1-22. 한국소비문화학회. <http://doi.org/10.17053/jcc.2011.14.3.001>
- 박은진, 고재경, 이수행, 이양주. 2013. “안심식탁을 위한 먹거리 정책방향.” 『이슈 & 진단』 제82권, pp. 1-26. 경기개발연구원.
- 서여주, 임은정. 2014. “소비자역량 만족도가 식생활 소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식품불안감 및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 45권 제 3호, pp. 131-156. 한국소비자원.
- 사지연, 여정성. 2014. “소비자불안의 수준과 영향요인: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 광우병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5권 제1호, pp. 145-172. 한국소비자학회. UCI:G704-000210.2014.25.1.006
- 송유진, 유현정. 2008. “식품구매 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모형 분석: 서울과 상해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19권 제3호, pp. 215-244. 한국소비자학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2018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http://www.mfds.go.kr/brd/m_376/view.do?seq=31105>.
- 양윤. 2014. 『소비자심리학』. 제2판. 학지사.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12. 『Catch up, 2012년 대한민국 소비자 생각읽기』. (주)지식노마드.
- 유현정, 주소현. 2012.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체감도가 식품안전지향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모형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8권 제4호, pp. 49-70.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UCI:G704-SER000010337.2012.8.4.006

- 윤송이, 유혜숙. 2016.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가 청소년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통합의학회지』 제4권 제 2호. pp. 109-120. 대한통합의학회. UCI:G704-SER000004025.2016.4.2.001
- 윤여임, 김경자. 2013. “식품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 질적연구를 통한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 권 제4호. pp. 15-31. 한국가정관리학회. UCI:G704-000320.2013.31.4.001
- 윤여임, 김경자. 2015. “식품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 지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1권 제4호. pp. 79-99.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UCI:G704-000320.2013.31.4.001
- 이계임, 김상효, 허성운, 최재현, 박인호. 2018.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기현. 2008. “식품위해 인식실태 및 위험커뮤니케이션 방안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 34호. pp. 105-134. 한국소비자원. <http://doi.org/10.15723/jcps..34.200810.105>
- 이성림, 손지연, 하희라, 김민정. 2014.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불안과 식생활 만족-소비자역량 만족도와 안전식품 구매 행동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 45권 제 2호. pp.137-157. 한국소비자원. <http://doi.org/10.15723/jcps.45.2.201408.137>
- 이승신. 2016. “식품위해 인식과 식품불안감이 식품안전관리제도평가에 미치는 영향: 식품안전정보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4권 제1호. pp. 69-81. 대한가정학회. UCI:G704-000012.2016.54.1.001
- 이유림. 2017. 『소비자정보 리터러시와 이성적 인지양식이 소비자혼란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 김규동. 2009. “대도시 주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우려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16권 제6호. pp. 999-1007.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UCI:G704-001594.2009.16.6.031
- 이현주. 2019. “농식품 소비자역량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만족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해과, 이승신. 2016. “소비자 식품안전 체감도에 따른 식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식품안전정보 신뢰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3호. pp. 15-26. 한국가정관리학회. UCI:G704-000320.2016.34.3.006
- 장민선, 강은진, 조미영, 최계선, 홍영표, 서갑중, 김건희. 2009.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제38권 제11호. pp. 1625-163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UCI:G704-000433.2009.38.11.002
- 전상민. 2014. “식품 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친환경상품 구매와 식품 소비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소득의 조절효과.”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2호. pp. 77-96. 한국소비자원. <http://doi.org/10.15723/jcps.45.2.201408.77>
- 전상민. 2015. “수입식품 불안전체감도가 국산식품 추가 지불의도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 『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6호. pp. 227-24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UCI:G704-SER000001473.2015.11.6.009
- 전상민. 2017. “소비자의 식품 위해불안이 식품표시 확인과 안전표시식품 구입에 미치는 영향: 안전표시 지식수준에 따른 차이검증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제 20권 제1호. pp. 87-108. 한국소비문화학회. <http://doi.org/10.17053/jcc.2017.20.1.004>
- 정정화. 2009. 『합평지역 고등학생의 식품위생 및 안전의식 조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아, 김정희. 2018. “온라인 구전정보 특성이 충동구매와 구매 후 행복에 미치는 영향: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제21권 제6호. pp. 37-47. 한국유통경영학회. <http://doi.org/10.17961/jdmr.21.6.201812.37>
- 최세현, 김은순, 이현주, 조재환. 2011.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원료 룻의 원산지인가 친환경인

- 가.” 『농업과학연구』 제 38권 제2호, pp. 361-368.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UCI:G704-SER000011699.2011.38.2.006
- 진현정, 임지연, 이계임. 2014. “소비자의 식품안전체감도 측정과 영향 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제 45권 제2호, pp. 1-21. 한국소비자원. <http://doi.org/10.15723/jcps.45.2.201408.1>
- 한진영. 2014. “대전지역 주부들의 식품위해요인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선, 김기욱. 2012. “현대 소비자의 소비자정보역량: 전자제품 구매 시 정보탐색 효율성 및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0권 제6호, pp. 99-117. 대한가정학회. <http://doi.org/10.6115/khea.2012.50.6.09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o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Iss. 6, p. 1173.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Dosman, D. M., Adamowicz, W. L. and Hrudey, S. E. 2001.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Health and Food Safety-related Perceptions.” *Risk Analysis*. vol. 21, Iss. 2, pp. 307-317.
- Eisenberg, M. B. and Berkowitz, R. E. 1990. *Information Problem-Solving: The Big Six Skill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 Norwood, NJ: Albex.
- Horgan, J. J. and Berning, J. P. 2012.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Food Purchases among Food Insecure Household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Association's AAEA Annual Meeting*. pp. 1-31.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and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 pp. 134-143.
- Smith, D. and Riethmuller, P. C. 2000. “Consumer Concern about Food Safety in Australia and Japan.” *British Food Journal*. vol. 102, Iss. 11, pp. 838-855.
- Sobel, M. E. 1982.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In N. Tuma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6*.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Wang, H. H., Zhang, X., Ortega, D. L. and Olynk, N. J. 2013. “Information on Food Safety, Consumer Preference and Behavior: The Case of Seafood in the US.” *Food Control*. vol. 33, Iss.1, pp. 293-300. <https://doi.org/10.1016/j.foodcont.2013.02.033>
- Warr, P. B., Butcher, V., and Robertson, I. T. 2004. “A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er people.” *Aging and Mental Health*. vol. 8, pp. 172-183.
- Yeung, R. M. W. and Morris, J. 2001. “Food Safety Risk: Consumer Perception and Purchase Behaviour.” *British Food Journal*. vol. 103, Iss. 3, pp. 170-186. <https://doi.org/10.1108/00070700510629788>

원고 접수일: 2019년 11월 11일
원고 심사일: 2020년 01월 15일
심사 완료일: 2020년 06월 25일